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	 외교부
		배포일시	2020. 9. 25.(금) 총 2매(본문)	
담당 부서	국제항공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홍락, 서기관 홍남식, 사무관 황성필, 주무관 황병철 • ☎ (044) 201-4208, 4215, 4212	
	외교부 동남아2과	담 당 자	• 과장 배현진, 서기관 김동윤 • ☎ (02) 2100-8593, 8594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< 보도내용(연합 등) >

- ◆ “기업인 입국정상화 요청에 베트남 대사 ‘25일부터 항공편 재개’”(연합, 9.23)
- ◆ “러시아-한국 하늘길 다시 열린다...” 27일부터 정기항공운항 재개“(연합, 9.19)

베트남行 · 러시아行 항공로 다시 열린다.

- 베트남 [인천發 → 하노이 · 호치민着] 총 주4회 -
- 러시아 [인천發 → 모스크바着] 총 주2회 -

-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한국發 베트남·러시아着 항공편이 각각 9.25일(금), 10.3일(토)부터 여객운항을 재개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외교부(장관 강경화)는 9.24일(목),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한국發 입국이 어려웠던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요 노선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운항을 본격 시작하게 되었음을 밝혔다.
- 우선, 베트남의 경우 기업인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입국이 원칙적으로 차단되어, 기업경영의 어려움은 물론 가족 상호방문 등 인도적 목적의 교류도 중단된 상태였다.
- 그간, 우리 정부는 지난 주(9.18) 한-베트남 외교장관회담 등 여러 계기에 9천여 개의 우리 기업이 활동 중인 베트남과의 항공로 복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끝에, 9.24일에야 최종 합의*에 이르게 되었다.

* 인천-하노이·호치민 노선에 대해 각 주2회, 총 주4회 왕복 운항 재개 합의

- 우선, 베측은 베트남항공의 인천-하노이 노선에서 시범운항(9.25)을 추진할 계획이며, 우리측은 베측의 입항허가 즉시, 한-베 간의 왕복운항*을 시작할 예정이다.

* 취항계획 : 대한항공(호치민(9.25), 하노이(9.28)), 아시아나항공(호치민(10.1))

- 다만, 베측의 서류 요구사항(비자, 3일內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, 격리 시설(확인中) 등)을 감안할 때, 본격적인 승객 수송은 10월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○ 한편, 러시아의 경우에도 러측의 조치로 인해 올 3월부터 인천-모스크바 간 정기편 운항이 중단되며 러시아에 입국을 희망하던 많은 국내 기업인·학생 등 수요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다.

- 국토부는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러시아 당국과 9.27일 이후부터 인천-모스크바 간 정기노선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* 하였으며, 이러한 맥락에서 러측의 한국發 입국금지 조치도 해제(9.20일)되었다.

* 인천→모스크바行 계획: 아에로플로트(10.3일부터 매주 토요일發), 대한항공(10.9일부터 매주 금요일發)이 운항할 계획이며, 인천行은 양사가 주1회씩 번갈아 운항

○ 이러한 항공로 재개는 방역당국을 포함한 국내 관계기관과의 심도있는 협의와 수시 조율을 통해 국제항공편을 통한 감염병 국내유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, 국민의 필수적인 경제적·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.

□ 국토교통부와 외교부의 담당자는 항공교통에 대한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코로나19의 국내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는 가운데, 앞으로도 하늘 길이 끊긴 국가와의 노선을 복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,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홍남식 서기관 (044-201-4208), 김동윤 서기관(02-2100-8594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